

研究中心의 존스 홉킨즈大學

李 洙 勳

(慶南大 社會學科)

1. 존스 홉킨즈大學의 歷史

존스 홉킨즈大學은 미국 메릴랜드 주의 중심 도시인 볼티모어 시내 북부에 자리잡고 있다. 소재지가 홈우드(Homewood)라는 명칭을 가져 통상 이곳을 존스 홉킨즈大學 홈우드 캠퍼스라 부른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존스 홉킨즈大學은 홈우드 캠퍼스 외에도 여러 대학원들이 다른 위치나 도시에 자리잡고 있다. 이 대학은 1875년에 동부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재산가인 존스 홉킨즈씨의 재산 헌납으로 세워졌다. 존스 홉킨즈라는 교명은 여기서 유래한다. 미국의 사립학교들은 통상 재산 헌납자의 이름을 따서 학교명을 붙이고 있다.

존스 홉킨즈大學은 일반적으로 미국 동부의 명문 사학들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은 이른바 아이비 리그로 불리는 여타 명문 사립대학들과는 전통과 역사 및 성격이 사뭇 다르다. 하버드대학을 위시한 아이비 리그 대학들이 대개 영국식 모델에 의해 설립된 학교들이고 대부분의 나머지 미국 대학들도 이 점에서는 유사하다. 이에 비해 존스 홉킨즈大學은 미국에서 최초로 독일식 대학 제도를 본떠 설립된 학교이다. 초기에는 도제 제도에 의한 소수 엘리트교육이 실시되었고 현대로 접어들면서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를 중

시하는 대학으로서 전통은 그대로 보존한 채 미국 대학교육의 대중화 요구에 아울러 부응하고자 형태적 측면에서 약간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물론 오늘날은 대다수의 미국 대학이 대학원 중심, 연구 중심 대학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근원은 존스 홉킨즈大學이며 동시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아직도 존스 홉킨즈大學이 앞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원 중심, 연구 중심 대학이라 하여 꼭 대학원만을, 연구만을 전부로 내세우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정향과 전통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학부교육도 중요하며 교수 활동도 결코 경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수와 연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양자간에 서로 호혜적인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이다.

홈우드 캠퍼스는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14만 평의 비교적 소규모의 수목이 우거진 홈우드 언덕에 문리대와 공과대학의 두 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하고 있다. 공과대학은 다른 대학교의 공대에 비교해 그 규모가 작다고 해야겠고 결국 존스 홉킨즈大學(홈우드 캠퍼스)은 문리대가 그 간판임을 인정해야 하겠다. 학부의 학생 수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겨우 3,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학원생이 약 1,000명에 이른다. 3,4만 명에 이르는 학생 수를 기록하는 대학들에

비하면 실로 초라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존스 홉킨즈의 면모와 질은 바로 이 소수 정예를 중심으로 엘리트교육을 한다는 데 있다. 교수들이 2명 내지 3명 정도의 학생만 지도하고 1 학기에 1 강좌 내지 2 강좌만 강의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연구 활동에 투입할 수 있고 학생들도 강좌 외의 많은 시간을 교수들과 보낼 수 있음으로써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존스 홉킨즈대학은 홈우드 캠퍼스 외에도 산하에 여러 개의 대학원과 연구 시설들이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의과대학이 존스 홉킨즈대학 병원과 함께 동부 볼티모어에 위치하고 있다. 의과대학은 명실공히 세계 제일의 교수진과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홈우드 캠퍼스의 학부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 의과대학에의 진학을 목표로 이 학교에 몰려들 정도이다. 의과대학과 더불어 보건대학원(School of Public Health)도 일류의 교육·연구 인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한국의 고급 두뇌들이 장·단기로 많이 거쳐간 곳이다. 그리고 워싱턴 D.C.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국제학대학원(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약칭 SAIS)도 아주 특징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우선 세계의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워싱턴에 자리하고 있다는 잇점 때문에 현실적이고 응용 차원의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여기는 박사과정도 매우 훌륭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석사과정에 많은 학생들이 몰린다. 석사과정에는 세계 도처에서 온 정부 관료나 외교관 등 장래를 짚어질 젊은 지도자들이 단기간 거쳐가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SAIS에서는 지역 연구도 매우 활발하여서 많은 전문가들을 교수진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근년에는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기부금을 내어 일본 연구에 치중한 ‘라이샤워연구소’가 설립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SAIS 과정의 또 하나의 강점은 워싱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워싱턴을 방문하는 세계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의 직접적인 체험을 들을 수 있어 장래의 정치·외교 전문가들에게 안

성마춤이라는 데에 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나 의회 지도자 및 정계의 인사들을 직접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강좌 시리즈도 있어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볼티모어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피바디음악원(Peabody Conservatory of Music)도 존스 홉킨즈대학의 자랑거리이다. 피바디음악원은 세계 유수의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음악원에 어깨를 견주면서 미래의 거장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우리 한국 출신 학생들도 상당수가 이 학교에서 실기 혹은 이론을 전공으로 교육받고 있다.

2. 존스 홉킨즈大學의 研究 施設

존스 홉킨즈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임은 이미 여러 번 언급하였다. 연구는 물론 개개인 교수들의 창의성과 학문적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개개인의 연구열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여기서는 이 대학의 간판격인 몇 개의 연구 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 센터를 중심으로 교수 개개인의 개별 연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공동 연구가 진행된다.

우선 사회과학 계통의 두 연구소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사회조직연구소(Center for Social Organization of Schools)’와 ‘대도시계획연구소(Center for Metropolitan Planning and Research)’가 그것들이다. ‘학교사회조직연구소’는 미국 연방 정부의 문부성내 교육연구소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연구하는 곳이다. 다양한 과제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 연구소의 주요 목적은 학교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학교 행정과 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연구소에 상근하는 박사급 연구위원들도 있지만 사회과학 교수들이 주가 되어 인접 학문 분야의 교수들이 비상임 연구진으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 과제들을 보면 학교 조직 연구, 교육과 직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학교와 범죄 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소와의 연계 때문에 존스 홉킨즈대학의 교육

사회학 전공 분야는 미국내에서도 손꼽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대도시계획연구소’는 학제간 공동 연구를 지향하면서 경제학, 지리학, 사회학, 도시계획 등의 학과 교수들이 시간제 연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는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공공 정책 분야도 담당하고 있다. 연구 활동 중 도시 연구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심리 및 환경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비교 도시와 지역 연구는 개발 도상 국가의 급격히 도시화하고 있는 도시 경제 및 산업 국가의 도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소는 또 학부에 Mayor's Fellowship 프로그램과 정치 지도자론이라는 두 개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고 대학원생들도 도시, 지역 계획, 교통, 에너지, 범죄 문제 등의 분야에서 연구 조교 수당을 받으면서 교수들과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세계 제일의 마르크시스트 지리학자인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교수가 이 연구소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세계 체제론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사회과학의 체이스던(C. Chase-Dunn) 교수도 이 연구소의 비상임 연구위원이다.

다음으로 자연과학 계통의 세계적 연구소를 소개하겠다. 1980년대 중반에 문을 연 ‘우주천체 과학연구소’는 오늘날 천체물리학을 전공하는 전 세계 교수들의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이 연구소는 미 항공우주국인 NASA의 우주천체 연구 계획의 일환으로 대학에 세워진 연구소다. 현재 세계에서 관련 분야의 최고 학자들은 거의 다 여기에 장·단기간으로 체류하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는 천체 망원경(space telescope)을 쏘아 올려 거기서 내려 보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천체물리학은 물론이고 이론물리학에서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많은 질문들에 답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유명한 물리학 분야 연구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응용물리실험실(Applied Physics Laboratory)’이다. 이 연구소는 미국 해군성에서 많은 연구 지원금을 내고 있으며 응용 물리 분야의 중요한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핵 물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한국계 물리학자 이영근 교수(춘원 이광수의 아들)가 물리학과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연구소의 핵심 멤버로 있다.

그리고 1948년에 설립된 ‘체사피크만연구소(Chesapeake Bay Institute)’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양·해저 연구 기관이다.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애나폴리스(Annapolis) 항에 실험 시설과 선박 건조 기지를 갖추고 있으며 체사피크만을 바라보는 반도에 현대적으로 완비된 연구 시설을 갖춘 이 연구소는 해안과 해양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개발하여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소의 연구진은 생물학, 화학, 해양학, 지질학, 물리학 등의 기초과학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응용 연구에도 종사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여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을 완벽히 보존하고자 개선된 방안들을 연구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공학 분야의 연구소 하나를 소개하면서 연구소 시설 소개를 마칠까 한다. 재료의 속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향상시키는 재료공학의 종합적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재료연구소(Center for Materials Research)’가 그것이다. 이 연구소는 홈우드 캠퍼스, 의과대학, ‘응용물리연구소’의 교수진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재료공학의 첨단 연구에 관심을 두는 다른 연구소들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연구 목적은 ① 실험 및 이론적 재료 연구를 통해 재료 공학에 기여하며, ② 특수한 시설 및 전문적 지식의 교류를 위해 다른 대학이나 학과간에 공동 재료 연구를 추진하고, ③ 학교 교수진의 연구 목적 추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며, ④ 재료 연구를 강화할 현대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⑤ 정부 기관, 산업체, 학교 및 기타 조직과의 상호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다. 결국 대학원생의 훈련이나 교수 및 연구진의 연구 활동을 돕는 현대적인 과학·공학 장비와 시설을 고안하는 종합적 시설 수립을 위해 이 연구소는 운영되고 있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소개한 연구소들 외에도 수 많은 연구소들이 있으나 존스 홉킨스대학은 이와 같은 연구소들을 바탕으로 제도적 뒷받침

하에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3. 자유로운 大學院教育

존스 홉킨즈대학의 대학원 교육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물론 이들 특징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존스 홉킨즈대학의 기본적 정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로 학생 수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대학의 경우는 바로 이 점 때문에 교수와 학생간의 긴밀한 학문적·인간적 유대 형성이 가능하고 또 학생들 사이에도 공동체적 결속이 형성되어 진지한 학문적 관심사를 토론할 수 있고 개인적인 문제들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대학원 교육은 역시 소규모의 학생 수에 지도 교수 중심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문 연구를 할 수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연관되는 특징이 되겠지만 대학원생들이 거의 도제에 가까운 모양으로 지도 교수나 학과의 다른 교수들의 밑에서 공동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 방법을 실제로 학습하고 최첨단의 학문적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교수와 학생간 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들이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따와야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들의 질과 배경이 높고 좋을 수밖에 없다. 학생이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교수와 같이 연구하고 또 심지어 연구 결과를 공동 발표하기 때문에 一石三鳥의 이득을 얻는 것이다. 존스 홉킨즈대학의 경우 박사과정애 있는 학생들이 교수들과 함께 우수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은 매우 독특하며, 또 대학원생들이 과정을 마치고 자리를 찾아 나설 때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학위 논문은 학위 받는 사람은 다 쓰는 것이니까 그 이상의 무엇이 요구되는데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있으면 그보다 더한 무기는 없다.

그리고 존스 홉킨즈대학의 대학원은 학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코스웍을 크게 중시하

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많은 학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바와 마찬가지로 필수 과목이 있고 정해진 이수 학점이 있다. 그러나 또 많은 학과의 경우 강좌를 듣는 것은 학생 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맡겨 두고 있다. 물론 지도 교수가 계속 살펴 보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은 듣지 말라고 해도 강좌를 이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예컨대 역사학과의 경우 코스웍은 공식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지도 교수가 보아서 “무슨 과목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들어야 하고, 혹은 “너는 그런 것 필요 없고 바로 논문을 써도 되겠다”고 해서 논문을 쓰라고 하면 좋은 논문을 써서 제출하면 학위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 운영되면 죽도 밥도 아닌 형편없는 대학원 교육이 될 수도 있으나, 역사학과의 경우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미국내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프로그램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영문학과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만 영문학과 대학원 프로그램 역시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든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학과들의 경우 학생을 입학시키는 절차부터가 다르다. 대학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수 개개인이 자기의 학생을 직접 선발한다. 따라서 선발 기준도 표준화된 기준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무개 교수가 자기 판단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주면서까지 데리고 와서 제자로 삼고 교육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같은 데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존스 홉킨즈대학에서는 잘 운영되어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교수들의 높은 수준,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 긴밀한 학문적·인격적 유대와 교류에 의한 양자의 접목 덕택에 가능한 것이다.

대학원 교육과정 중에 또 하나 특징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이 있다면 다양한 차원, 즉 학과 차원에서나 연구소 차원에서나 대학 전체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과외 강좌들을 꼽을 수 있겠다. 존스 홉킨즈대학에서는 밀턴 S. 아이젠하워 심포지움, 케네디 강좌 시리즈, 마틴 루터 킹 목사 강좌 시리즈 등 수 많은 외부 학자 초청 강좌가 거의 매일 열리고 있다. 세계의 석학들이나 유명한 저널리스트, 작가 등의 인사들이 초

청되어 자신의 연구 업적이나 관심사를 얘기한다. 필자도 이러한 강좌를 통해서 내노라 하는 세계적 사회과학자들을 다수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4.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주마간산격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자료와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존스 홉킨즈대학을 살펴 보았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학 역시 그 발전사를 들여다 보면 돈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학교가 흥하고 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알고 있는 하바드대학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하바드대학이 계속 일반적으로 정

상의 자리를 지키는 데는 바로 재정적인 면에서의 성공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조적으로 왕년에 우수한 주립대학들이 주 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 때문에 눈에 띄게 쇠락의 길을 걷는 경우가 허다하다.

존스 홉킨즈대학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고 따라서 미래의 전망도 밝다. 창조적 연구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소수 정예의 엘리트교육을 강조하는 존스 홉킨즈대학은 앞으로 양적인 규모의 팽창이나 피상적인 명성보다는 교육의 내용과 질적 측면에서 보다 깊은 탐구적 자세와 창의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역사를 계속 꾸려가리라고 본다. *